

이산가족 상봉·금강산 관광... 정부 분리대응

“북 연계 전략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 원칙 고수

‘천안함 폭침’ 책임 조치 있어야 ‘5·24’ 해제 가능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해서 대응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분리해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연계 전략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전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담화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우리측의 ‘23일 적십자 실무접촉’ 제안을 수용하면서도 회담 장소를 ‘금강산’으로 하자고 역제하는 한편 하루 앞선 22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별도의 회담도 금강산에서 갖자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은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 따라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재발방지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이 있어야 관광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다른 당국자는 이날 “(금강산 관광

문제는) 풀겠다는 것이고 안 풀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북한이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검토해서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당국자는 “금강산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극정도, 부정도 아니고 신중하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정부 내 분위기를 전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을 통해 전날 발표한 조평통 담화 내용을 공식 문건으로 우리측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산상봉 실무접촉을 금강산이 아닌 당초 우리가 제안한대로 판문점에서 갖자는 입장과 금강산 관광재개 회담 문제는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구성 논의와 공단의 설비 점검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 문제와 관련, “원인 행위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했다는 것은 다 알 것”이라면서 “5·24 조치의 해제를 위해서는 원인 행위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5·24 조치 해제 수순에 돌입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설명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한 것으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불투 등이 골자다. /연합뉴스



일본 가고시마현의 시쿠라지마 화산이 18일(현지시각) 폭발,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 이날 쇼와 화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분화로 연기가 무려 5000m 상공까지 뿜어 올랐으며 화산재의 영향으로 인근 지역의 보행자들은 마스크를 하거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려야 했다. 일부 구간의 열차운행이 지연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중 구금 김광호씨 처제·처남 복송 될 듯

김씨 부부와 딸은 한국행

중국 공안에 체포됐던 재탈북자 김광호씨 부부와 딸은 한국 국민으로 인정이 돼 한국행이 성사됐으나 함께 탈북한 김씨의 처제와 처남은 이미 복송됐거나 조만간 복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대북소식통은 19일 “중·국 당국이 한국 국적인 김씨 부부와 딸 등 3명과 한국 국적이 없는 김씨의 처제·처남을 20여일전 분리해 수감

했다”면서 “이어 김씨의 처제·처남은 10여일전 투한의 번방대로 보내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탈북자 인권운동가들은 “투한 번방대는 복송 바로 전 단계”라며 “투한 번방대로 이송됐으면 복송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한 소식통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5명 모두 데려오는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김씨 가족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입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北 ‘이산상봉+금강산’ 패키지 제안 속내

경험 가로막는 ‘5·24조치’ 해제 유도 원산 관광특구 개발 등 다목적 포석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연계해 다시 한번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금강산관광은 외화 수입원으로 시 갖는 가치뿐 아니라 남북 경제협력의 원동기라고 있는 ‘5·24 조치’의 해제, 원산 관광특구 개발 등 다목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금강산관광을 되살리는 데 강한 애착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금강산관광이 주요 외화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북한이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연간 4000만 달러 이상으로 추

산된다. 이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수입인 연간 9000만 달러의 약 절반에 달하는 액수다.

북한은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 금강산의 남측 재산을 몰수하고 특구로 만들어 자체 개발에 나섰다만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유람선을 활용한 해상관광과 연계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금강산관광을 재개해 남한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것이 금강산관광을 되살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또한, 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주도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제재인 ‘5·24 조치’의 해제를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출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듯하다”며 “금강산관광 재개를 논의하면서 5·24 조치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과 인접한 원산 관광특구 개발 계획도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집착하는 이유로 거론된다. 북한은 외자 유치에 의해 원산 일대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원산 관광특구 개발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제시한 ‘경제강국 건설’ 목표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꼽히기 때문에 최고지도자의 치적과 직결된다. /연합뉴스

DJ 만손자 종대씨 정치 입문?

조부 4주기 인터넷서 “최선다하면 길 열리지 않겠나”

“지금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제가 정치하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생전에도 가족 중에서 누군가 정치의 대를 이어주길 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만손자로 미국에 사는 종대(27)씨가 18일(현지시간) 애틀랜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언론과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다.

종대씨는 “앞으로 정치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쯤은 뒤라고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정치는 내 성격과 거리가 멀고 딱히 가슴에 와 닿지 않아 그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며 여지를 남겼다.

종대 씨는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의 만아들이자 ‘DJ 가문’의 대를 잇는 종손이다. 김 전 대통령의 장남 홍일씨에 게는 딸만 셋이 있어 국장 때 종대 씨가 할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들었다.

김 전 대통령은 손주들 중에서 종대씨를 가장 아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거 사흘 뒤 공개된 ‘마지막 일기장’에서 고인은 만손자를 향한 애뜻한 심정과 기대를 드러냈다. 고인은 일기장에 “2009년 5월30일, 손자 종대에 게 나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이웃사랑이 믿음과 인생살이의 핵심인 것을 강조했다”고 적었다.

그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중·고교를 나와 애틀랜타 소재 명문 사립대학인 에모리대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다. 지난해 졸업 후 에모리대에 교직원으로 취업해 국제교류협력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동생 종민(24·에모리대 영문과)씨와 함께 타의에 의해 조기유학 길에 오른 아들을 갖고 있다.

그는 귀국 시점에 대해 “대학원에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공부에는 확신이 안 선다”며 “결국 때가 되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대통령 “전월세난 해결 적극 나서달라”

지하버커서 첫 NSC 주재도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전월세난과 관련, 당정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전월세 문제가 인해서 서민과 중산층 국민이 고통이 크다”면서 “이번 주부터 은행에 전세자금대출한도가 확대되지만 급등하는 전세값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차액을 월세로 돌린 가정은 그야말로 가정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며 “지금 서민과 중산층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주택 전월세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지명기자 jpkap@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지하버커’로 불리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을지 국가안보보좌회의(NSC)’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이 NSC를 주재하기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오전 8시부터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류길재 통일장관, 윤병세 외교장관, 김관진 국방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유정복 안방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비롯해 참석자들은 모두 민방위 점검을 나섰다.

박 대통령은 NSC 직후 을지국무회의도 주재, “천하가 비록 태평하다고 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말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전시상황에서 기관별 전선환절차와 전시임무수행체계를 정립하고 전시에 적용할 계획 등을 종합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지명기자 jpkap@

남악 유탑 유블레스900 단지내 상가공급 공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군 남악신도시개발사업 - 18381호(2013. 08. 16)로 분양신고를 득함
- 분 건축물건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허가번호 : 2012-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신축허가-50)
- 공급위치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76, 1477
- 공급면적 : 분양대상 연면적 : 2,197.23㎡, 대지지면 : 230.29㎡
- 공급용도 : 근린생활시설
- 공급규모 : 상가 1개동 총 24실(지상1층)

(단위:㎡, 공·역·액, VAT포함)

호수	계약면적			대지지면 (㎡)	점포 수	분양금액(천원)			공급방법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계 (㎡)			합계	대지비	건물가액	
101호	92.3348	29.3000	121.6348	12.7485	1	459,875,000	59,737,000	363,761,810	36,376,190
102호	84.8760	26.9322	111.8082	11.7187	1	465,025,000	60,406,000	367,835,450	36,783,550
103호	106.9200	33.9283	140.8483	14.7623	1	639,150,000	83,025,000	505,568,180	50,556,820
104호	21.2884	6.7553	28.0437	2.9393	1	167,600,000	21,771,000	132,571,810	13,257,190
105호	66.4904	21.0990	87.5894	9.1802	1	530,000,000	68,847,000	419,230,000	41,923,000
106호	45.2020	14.3437	59.5457	6.2410	1	315,175,000	40,941,000	249,303,630	24,930,370
107호	35.6490	11.3123	46.9613	4.9220	1	230,912,500	29,995,000	182,652,270	18,265,230
108호	71.6923	22.7497	94.4420	9.8985	1	428,550,000	55,668,000	338,983,630	33,898,370
109호	78.0480	24.7665	102.8145	10.7760	1	427,625,000	55,548,000	338,251,810	33,825,190
110호	41.7040	13.2337	54.9377	5.7580	1	228,525,000	29,685,000	180,763,630	18,076,370
111호	90.9920	28.8739	119.8659	12.5631	1	453,250,000	58,877,000	358,520,900	35,852,100
112호	103.7820	32.9325	136.7145	14.3290	1	517,000,000	67,158,000	408,947,270	40,894,730
113호	40.8200	12.9532	53.7732	5.6360	1	264,387,500	34,343,000	209,131,360	20,913,140
114호	64.8000	20.5626	85.3626	8.9468	1	419,575,000	54,502,000	331,884,540	33,188,460
115호	69.3900	22.0191	91.4091	9.5806	1	483,875,000	62,855,000	382,745,450	38,274,550
116호	39.7000	12.5978	52.2978	5.4813	1	276,850,000	35,962,000	218,989,090	21,899,090
117호	68.2840	21.6681	89.9521	9.4279	1	476,175,000	61,855,000	376,654,540	37,665,460
118호	68.2840	21.6681	89.9521	9.4279	1	476,175,000	61,855,000	376,654,540	37,665,460
119호	57.7238	18.3171	76.0409	7.9696	1	402,500,000	52,284,000	318,378,180	31,837,820
120호	55.1700	17.5068	72.6768	7.6172	1	384,650,000	49,966,000	304,258,180	30,425,820
121호	51.3000	16.2787	67.5787	7.0829	1	332,150,000	43,146,000	262,730,900	26,273,100
122호	116.1940	36.8711	153.0651	16.0427	1	752,375,000	97,733,000	595,129,090	59,512,910
123호	84.0000	26.6552	110.6552	11.5978	1	543,887,500	70,650,000	430,215,900	43,021,600
124호	113.3070	35.9550	149.2620	15.6441	1	733,687,500	95,306,000	580,346,810	58,034,690

-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상의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登記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한다.

- 제1층, 제2층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규정의 용도를 말하며, 정시차,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및 오락시설은 제외된다.

■ 공급방법 : 점포별 공개 경쟁입찰 (내정자가 이상 최고가격 응찰자를 낙찰자로 함)

■ 입찰안내

1. 응찰자는 각 점포별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한 후 현장에서 등록증자를 마쳐야 하며, 대리 입찰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응찰자는 입찰 당일 30분까지 입찰 장소에 입찰하여야 하며, 투찰 시에는 입찰서에 입찰금액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 날인 후 봉투에 넣어 밀봉한 다음 입찰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3. 동일 금액의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서 낙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입찰보증금 환불은 2013.08.28(수) 17:00 이후에 입찰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는 본인 명의의 계좌(입찰 한도액이 없는 보통예금계정일 것)에 자동 입금되어 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공급일정 및 장소

구분	기간	구 비 서 류	장 소					
신청 접수	2013. 08. 22(목) (10:00 ~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가신청서(입찰참조서비지) ▶ 입찰보증금 : 호별밀봉 1천만원 (시중은행발행 자기앞수표 1배) ▶ 주민등록 등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주민등록증(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도장 ▶ 신청금 환불 통장 사본(반드시 신청자 명의 통장 일 것) ▶ 대리인 신청서 위임장 제출(인감증명서 첨부) 	현장사무실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76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보증금 영수증 ▶ 계약금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서 위임장 제출(인감증명서 첨부) 						
입찰	2013. 08. 22(목) (10:00 ~ 15:00) (개찰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서(입찰참조서 비지) ▶ 도장/신분증/입찰보증금 영수증 	현장사무실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76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보증금 영수증 ▶ 계약금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서 위임장 제출(인감증명서 첨부) 						
계약	2013. 08. 23(금) (10:00 ~ 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보증금 환불(입찰자 제외) - 환불일시 : 2013.08.28(수) 17:00 이후 	현장사무실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76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찰자 결정방법 - 점포별로 당사 내정가격 이상의 최고 응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동일금액의 최고응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며, 응찰자가 1인일 경우에도 당사 내정 가격 이상이면 유효합니다. - 입찰가격이 당사 내정가격 미만일 경우에는 유효로 하며, 유효된 점포는 당사에서 임의로 분양합니다. - 입찰금액은 만원단위까지만 기재하여야 하며, 만원단위 미만은 절삭합니다. - 복수 점포(연속된 2점포이상)입찰신청서 개별별로 신청자보다 우선하여 낙찰로 결정됨. 						
■ 대금납부방법	구 분	계약금	중도금(1차)	중도금(2차)	중도금(3차)	중도금(4차)	잔 금	비고
		납부일	2013. 12. 31	2014. 02. 28	2014. 4. 30	2014. 06. 30	입점시점일	
■ 입찰보증금	납부금액	낙찰액의10%	낙찰액의 12.5%	낙찰액의 12.5%	낙찰액의 12.5%	낙찰액의 12.5%	낙찰액의 40%	
		-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낙찰금액에는 매출부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반드시 아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며, 지정된 납부일정에 입금하지가 barriers,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771301-01-603017 예금주 : ㈜무공회신탁	- 계약자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입금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공 및 입점 예정일 : 2014년 7월(정확한 입점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업점원이 입점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업점주에게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날할 인은 적용되지 않음.

■ 유의사항

- 입찰금액이 입찰보증금한도금액(입찰보증금의 10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공급회사에 귀속됩니다.
- 낙찰자는 계약일 마감시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공급회사에 귀속됩니다.
- 각 점포의 시설 기준은 공급회사에서 사용장사를 받은 상태로 공급하며, 영업 및 인허가에 부가되는 시설(전열대, 칸막이, 간판, 상하수도, 가스배관, 냉난방시설, 전기기설(추기용량설치 등)등)은 입찰자 부담입니다.
- 분양된 점포에 관한 제반사항(영업 인허가, 용도변경, 점포관리 등)은 공급 받는자의 책임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 학원, 고스튜디오 영업을 원하는 분은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인가 최소면적 및 '기타 개발' 조건을 확인 한 후 신청하기 바람에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인·허가에 따른 제반사항은 입찰자 본인인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들은 입점전에 상가지치권위원회 결성하여 입점후 각 점포별 제반권리는 상가지치권위원회에서 자치관리하여야 합니다.
- 상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당사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 용도(근린생활시설)의 범위내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입점 시 및 입점 후의 업종등록에 대해서는 입점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공급회사와는 무관합니다.
- 점포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에 한합니다.
- 품질등 각종 인센티브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는 개찰 전후를 불문하고 교환, 변경, 반환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분양일정에 해지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되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점포의 당점명 무효로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공급회사에 귀속됩니다.
- 신청자는 동 분양공고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찰결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분양면적표는 공급진흥청지침에 의거 ㎡로 표기되며 평기산출은 ㎡*0.3025=평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상가에 대한 현상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현상 확인은 본인이 직접하여야 하며, 현상을 확인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 이므로 추후 회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관리신탁 관련사항

- 본 사업부지는 위탁자 (㈜유탑건설, 수탁자 (주)무공회신탁, 시공사 (㈜유탑건설, ㈜유탑건설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간에 분양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바,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보존 업무만을 수행하며 사업주체 또는 매도자로서의 실질적인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 수탁자(신탁대상, 분양대금 관리자) : ㈜무공회신탁
- 위탁자 : (유)유탑건설
- 시공사 : (유)유탑건설, (유)유탑건설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감리자 : (주)신상건축사사무소
- 현장사무실 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76번지
- 분양문의 : 061-285-8384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자세한 내용사항은 반드시 분양사업장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